

인생은 항해다

성경말씀: 행27:27-38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 죄수로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길게 적으셨을까? 롬15:4 ★★★

죄수인데도 그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선장, 백부장, 죄수들, 섬의 주장이 다 그의 말에 따른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

인생은 항해다. 배를 타면 언제 바다의 위험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

일기예보가 맞을 것 같다가도 틀린다. 굴곡이 있다. 시편 107:23-31

인생도 비슷하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굶은 채 파선을 당했다(20절). 구원 받으리라는 소망이 없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벗어난다. ★★★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24, 34), 인생은 항해다.

배경

이제까지 누가는 주로 바울만 언급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라고 말한다.

같이 로마에 간 사람: 누가, 아리스다고, 백부장 울리오, 죄수들, 276명(37절).

아드라미티움의 배(연안 여객선)는 가이사라를 떠나 하루 만에 시돈에 닿아 휴식을 취했다(2-3).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서풍으로 인해 어려웠다.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이집트의 곡물 선을 발견하고 울리오는 배를 갈아탔다(6).

또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는 크레테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에 겨우 도착하였다(8).

'여기서 겨울을 지내나, 아니면 60킬로미터 떨어진 베니게에서 겨울을 보내나?'

폭풍의 계절(11-12월경)이므로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나라고 했으나 백부장은 선주의 말을 들음.
바울의 예언(10절)

이유: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12절). 또 순한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13절)

다들 바울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순풍이 유로클루돈이라는 폭풍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14절).

배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였다. 해도 별도 못 보게 되었다. 먹지도 못하게 되었다(18-19절).

순풍을 조심해야 한다(13-14)

이미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아름다운 항구에서 쉬고 있다. 그런데 유혹하는 순풍이 불기 시작한다.
인생 항해도 비슷하다.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면 이때에 순풍의 유혹이 다가온다. ★★★

마귀는 감미로운 말, 친한 친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이브에게 마귀가 던진 말: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창3:6). 마귀는 대개 좋은 것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
순풍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파선과 재산의 손실, 건강의 손해, 생명의 위험을 당한다.

술, 담배, 나쁜 영화, 음악, 친구, 취미: 여기에 빠지면 궁극적인 손실이 온다.

이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판단하는 영을 받아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

경고에 주의해야 한다(27-28).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자정 쯤 되어 어느 지방에 이른 줄 알게 됨.

소리를 물의 깊이를 재보니 스물 길, 열다섯 길, 육지에 가까이 다가감을 알리는 경고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공적인 경고

친구나 친지의 사적인 경고

양심의 경고

경험의 경고

'멈추라'는 경고를 받을 때 반드시 닳을 내리고 멈추어야 한다.

인생은 어려운 항해이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선당할 때 닳을 내려야 한다(29절).

‘이 배에는 닳이 없습니다.’라고 쓴 표지가 있으면 아무도 그 배를 안 탈 것이다.

배는 변한다. 그러나 배의 닳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

세상은 변한다. 자동차, 아파트, 편리한 가구, 기계 등

그러나 인생의 내부는 변함이 없다: 마귀, 육체, 세상의 위험, 슬픔, 걱정, 유혹 ★★★

그래서 인간은 인생 항로에서 여전히 닳이 필요하다. 4개의 닳(29절)

1. 교회와 교회에서의 공예배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눅4:16).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딤후3:14-15, 하나님의 집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안식처이다.

주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시122:1). ★★★

2. 좋은 가정과 부모

영국의 해군 제독의 말: 늘 집에 편지를 쓰는 병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요셉의 경우: 역풍, 순풍,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견디기 어려움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39:9)

3. 성경

미국 해병들에게 물었다. 어떤 책을 지니기 원하는가? 50% 이상이 성경이라고 말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면 소용이 없다. 읽어야 한다.

성경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든다. 죄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딤후3:14-17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

진리 앞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다. 사필귀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진리가 승리한다. ★★★

4. 기도

그리스의 해군은 가장 확실하고 강한 닳이 있었다. 거룩한 닳이라 불렀다.

기도는 바로 이처럼 인생 항로에서 가장 강한 닳이다. 은밀한 가운데 일하는 거룩한 닳이다.

대언자(예레미야), 사도들(바울, 베드로와 요한), 순교자들, 믿음의 모든 선진들, 예수님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한다. 기도로 마귀의 계획을 꺾는다. ★★★

폭풍의 교훈

1. 폭풍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서 생긴다(요나, 배부장).

다른 사람의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남편과 아내, 부모자식, 목사와 성도

2. 폭풍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 준다: 몰래 도망가려는 사람들, 그저 행운만을 바라는 사람들,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3. 극심한 폭풍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이 계획을 바꿀 자는 없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로 인해 살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남편과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우리 교회: 킹제임스 성경, 모델 교회 ★★★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나간다.

4. 폭풍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된다.

바울은 죄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276명을 살렸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 ★★★

결론

당신은 좌절하고 있는가? 어떤 폭풍을 만나고 있는가?

살기 위해 4개의 닳을 내려라: 교회, 가정, 성경, 기도 ★★★